

어항청소선 · 크린오션호, 오 · 폐물 1,959톤 수거

161개 항에서 886일 작업



한 국어항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과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린오션호가 올해 국가어항과 연안, 그리고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만과 지방어항에서 총 886일 동안 1,959

여톤의 오·폐물을 수거해 어항 주변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별로 보면 군산, 목포, 고흥, 여수, 통영, 포항, 주문진, 인천 등 우리나라 연안 161개 항에서 부유물 158여톤, 침전물 216여톤, 항행장애물 1,585여톤의 오·폐물을 각각 수

받고 있다.

특히 어항 906호는 올해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나비'로 인해 발생한 감포항 주변 부유물 46톤을 수거하는가 하면, 크린오션호는 지난 7월 제 10회 '바다의 날'을 맞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주관하는 '바닷가 대청소' 행사에 참여하였고, 10월에는 인천감문 내항의 선박 입·출항에 장애가 되는 침전물 및 부유물을 수거, 깨끗한 바다가꾸기를 실천하는 등 해양환경 의식 고취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어항청소선은 항간이동이나 원거리 출동에 어려움이 있어 도서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어항과 연안 수역의 원활한 청소를 위해서는 어항청소선의 증톤 및 증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거했다.

어항청소선과 크린오션호는 전국 연안 시·군 및 일선수협과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 효율적인 어항 청소와 어항 환경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끝마쳐

제8차 양양 남애마을 행사를 마지막으로

한 국어항협회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가 강원도 양양군 남애2리 어촌계에서 지난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 1박2일 간 실시된 행사를 끝으로 성료되었다.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찾는 관광어촌'을 모토로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 및 아름다운 어촌 100선 마을인 남애2리 어촌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수도권 일대가족단위 일반인 80명이 참가, 낚시어선 승선체험, 새벽경매 관람, 해돋이, 백사장 연날리기, 수산물 시식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날 행사 관련 사진과



참가후기 등을 협회 사이트(www.fipa.or.kr)에 게재,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어촌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의 주도로 올해 총 8회가 실시된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는

동·서·남해에서 다양한 어촌체험을 일반인 및 여론 주도층에게 제공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행사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촌이 관광목적지로서 매력적인 장소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 어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증대 방안으로써 어촌관광의 가능성을 눈으

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어항협회는 앞으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찾아가기와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예정이다.